

은유표현의 명제성과 은유성

김 건 수
(강원대학교)

1. 서론

“은유는 언어뿐 아니라 사고와 행위, 일상 생활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Lakoff and Johnson 3). 그런데 언어의 의미영역이 확대되거나 전이된 결과가 은유라고 본다면 은유는 결국 언어행위의 한 범주인 셈이며, 이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의문 중 하나는 그렇다면 은유를 ‘명제적’ 언어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언어학이나 언어철학이 은유를 다루는 경우 실은 은유의 명제성 여부를 떠나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Austin(1962)으로부터 Grice(1975)를 걸쳐 Searle(1979)에 이르는 화행론, Richards(1964)와 Black(1979)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이론, Miller(1979)의 직유에 바탕을 둔 비교이론 등이 언어의 비유구조에 접근한 것은 은유의 명제성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다.

은유의 명제성 여부가 구체적인 쟁점으로 부각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자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개념은유에 준거하여 모든 은유에 대해 명제성을 주장한 경우 (Glucksberg and Keysar 1993), 이에 반해 은유의 명제성을 부정한 경우(Lakoff 1993) 등이 그 예이다. 이후 Lakoff와 Johnson(1980)—앞으로는 Lakoff/Johnson으로 표기—은 후자의 견지를 더욱 세밀하게 정리하여 “은유는 명제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 Engström(1999)은 다시 개념은유를 쟁점으로 삼아 Lakoff/Johnson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은유는 명제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Engström의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려는 데에 있다. 결론부터 말해 그의 논지에는 오류가 있으며 또한 그 오류의 소지가 실은 Lakoff/Johnson의 분석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특히 ‘사상’(寫像: mapping)이라는 수리논리적 용어를 은유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지적할 수 있는 바, 이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Lakoff/Johnson의 분석에 내재한 사소한 개념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은유가 명제적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이 은유의 성격을 올바르게 정의한 것으로 판단한

다. 은유가 지니는 문자적 의미를 뛰어 넘을 때 비로소 은유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이 글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2. 은유의 명제성

Engstrøm은 Lakoff/Johnson의 이론을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 논점으로 집약하여 이를 반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논점 1: 은유는 언어적 행위일 뿐 아니라 개념적 사고의 소산이기도 하다.
- 논점 2: 은유는 하나의 개념구조가 다른 개념구조에 부분적으로 포개지는 과정이다.
- 논점 3: 은유의 '사상' (포개짐)은 근원(source)영역으로부터 목표(target)영역을 향하므로 엄격하게 '단일방향적' (unidirectional)이다.
- 논점 4: 은유의 근원개념은 목표개념의 부분을 이룬다.
- 논점 5: 따라서 개념은유는 명제적이지 아니며, 나아가 모든 은유는 명제적이지 않다.

2-4의 논점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 '논점 4'는 '논점 2'를 환언한 것에 해당하며, 이 둘은 다시 '논점 3'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논점 3의 단일방향성 개념은 'A→B'라는 기호로 표기할 수 있거니와, 가령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만 '동물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사람'이라는 개념은 '동물'이라는 개념에 부분적으로 포개지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 관계가 은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Lakoff/Johnson의 논지이다.

개념은유 내지 은유 전반이 명제적이지 않다는 것(논점 5)은, 명제와 달리 은유는 문장의 의미와 사고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음을 뜻한다. 은유가 관습적인 표현으로 굳어질 때 은유성을 잃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Lakoff/Johnson의 설명이다. 관습적 개념의 은유는 개념적 사고의 소산으로써 단지 부수적으로 언어에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대해 Engstrøm은 논점 5가 그 이전의 논점들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1-4와 같은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완전히 옳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54). 이 후자의 사항에 관련하여 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논한다.

(1) 논쟁은 전쟁이다(ARGUMENT IS WAR).¹⁾

Engstrøm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대해 Lakoff/Johnson은 다음과 같은 논조를 편다. 엄밀 의미론적 관점에서 볼 때 ‘논쟁’과 ‘전쟁’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1)과 같은 표현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이 은유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적 사고가 개입되어야 한다(논점 1). 그러나 전쟁은 논쟁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무기나 군인 등의 개념을 포함하므로, 논쟁의 개념은 전쟁의 개념에 단지 부분적으로 포개진다(논점 2). 전쟁이 논쟁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또한 그 포개짐(사상)이 일방향적임을 뜻한다(논점 3). 이는 또한 논쟁이라는 근원개념이 전쟁이라는 목표개념의 부분을 이룬다는 점을 뜻한다(논점 4). 그런데 (1)과 같은 표현이 (은유로서) 가능하다는 것은 논쟁과 전쟁이 동일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명제개념상의 논쟁(argument)과 전쟁(war) 사이에는 ‘부분 사상’만이 있는 반면, 은유적 개념의 논쟁(ARGUMENT)은 전쟁(WAR)과 ‘완전 사상’의 관계에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충을 해소하려면 ‘논쟁’을 ‘전쟁’의 개념으로 바꾸는 은유화 과정이 상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개념은유는 명제적일 수 없다(논점 5).

그러나 Engstrøm은 이 논조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54-55). 만일 개념은유 과정 이전의 논쟁(argument)이 그 이후의 그것(ARGUMENT)과 같다면 그 개념구조는 ‘전쟁’의 개념구조와 같은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논쟁’이 ‘전쟁’의 부분 개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정해 놓은 것이 개념은유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와 4같은 주장은 포기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사실 은유과정을 거친 ARGUMENT는 전쟁이라는 개념의 근원영역과 ‘완전 사상’ 관계에 있지만 은유과정 이전의 argument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 둘은 같은 개념구조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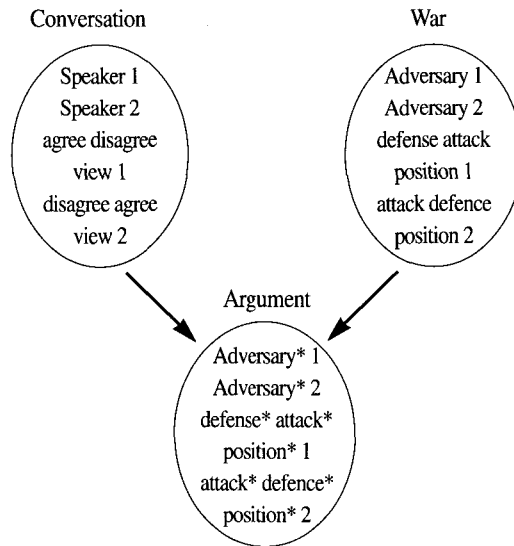
그는 이러한 문제가 실은 논점 1과 5 사이에 있는 더욱 근본적인 모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은유가 언어적 행위일 뿐 아니라 개념적 사고에도 연관된다면 은유가 명제적일 수도 있음을 함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유가 명제적이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은유가 명제적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Engstrøm은 Lakoff/Johnson의 말을 역이용하기도 한다. 즉 그들의 말대로 ‘대화’(conversation)를 ‘논쟁’으로 이

1) 명제적 진술과 은유적 표현을 구별하기 위해 후자는 (영어의 경우) 통례에 따라 대문자로 표기함. 그러나 (제3장에서와 같이) 은유적 표현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음.

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쟁'이라는 개념의 여러 부분적 속성들이 CONVERSATION의 개념구조에 포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말에서 CONVERSATION의 심리형태(psychological Gestalt)가 '전쟁'에 대한 심리형태의 속성에 대응되어 구조화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위인 '대화'는 또 다른 행위인 '싸움'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화에서 우리의 인지력(지각)과 행위에 '전쟁'의 심리형태가 들어맞을 때 대화는 논쟁으로 경험된다(81).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화'는 '전쟁'에 의해 은유적으로 구조화되어 '논쟁'을 도출한다.

이렇게 하여 '대화'와 '전쟁'의 개념이 은유적으로 포개진다고 Engström은 말한다. 즉 우리는 전쟁의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또 대화의 관점에서 전쟁을 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방향성(directionality)이 은유의 특성인지 아닌지는 CONVERSATION과 WAR를 포함하고 있는 은유과정의 산물로서 ARGUMENT가 어떻게 나타나는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논지는 Turner와 Fauconnier(1995)가 제안하는 "혼합공간"(blended space)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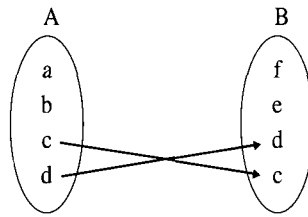
Conversation과 War가 Argument를 생성하는 방법
 (*표는 은유화 과정 이후의 것을 뜻함)

Turner/Fauconnier에 의하면 두 개의 심적 공간(mental space) 혹은 입력영역(input-domain)이 부분적으로 혼합되어 제3의 심적 공간이 형성되는 바, Engström식으로 말하자면 CONVERSATION과 WAR가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ARGUMENT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셈이다. Lakoff/Johnson은 ARGUMENT IS WAR라는 은유표현에는 '사상'(mapping)의 문제만이 있고 명제적인 측면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근원 개념이나 목표개념의 정의가 은유내용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Engström은 은유화 과정에서 CONVERSATION이 ARGUMENT로 변했으니 WAR는 WAR*가 되고, 그렇게 되면 ARGUMENT의 속성과 WAR*의 속성이 같아지게 되므로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표현은 명제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Engström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WAR*의 속성 일부, 그리고 ARGUMENT의 속성 일부를 선택해서 대응시킨다고 하더라도 'A is B'와 같은 명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속성 일부만의 사상으로 A와 B가 같아지는 것이라면, 'A is B'의 유형에서 A와 B가 같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적 겹침(사상)에 준거하여 모든 개념구조의 명제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 명제가 아닌 개념이 어디 있겠는가?

필자가 보기에, 은유가 비명제적이라는 Lakoff/Johnson의 견해에 대한 Engström의 비판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특히 그들의 '논점 1'과 '논점 5'에 관련된 비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은유가 언어적 행위일 뿐 아니라 개념적 사고에도 연관된다" 함은 은유가 명제적일 수도 있음을 함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유가 명제적이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Engström의 논박을 앞서 우리는 보았지만, 그렇다고 이에 근거하여 "은유는 명제적이다"라고 단언한다면 이 또한 명백한 모순이다. 요컨대 은유가 비명제적이라는 개념은 '논점 1-5'에 대한 Engström의 논리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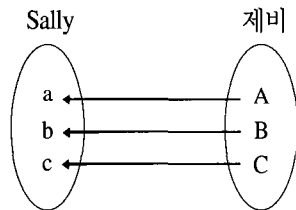
사실 Engström의 삼단논법식 비판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 명제는 A의 속성 전체와 B의 속성 전체 사이에 겹침(mapping)이 있을 때 성립한다. 속성의 일부만의 겹침으로 명제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수학에서 4의 배수는 2의 배수라 한다면 그것은 참의 명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4의 배수 모두가 아닌 일부만이 2의 배수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는 참의 명제가 아니다. 속성의 일부만이 같아서 대응이 되는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해 속성의 '공통부분' 내지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 '포함' 관계를 운위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음의 도표를 보자.



잘못 이루어진 사상²⁾

여기서 A의 일부 속성 <c, d>와 B의 일부 속성 <d, c>는 서로 겹치며, 이런 점에서 A와 B 사이에는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A is B’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부 속성들의 겹침이 명제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예컨대 ‘Sally는 날씬하고 빠르다; 제비는 날씬하고 빠르다; 따라서 Sally는 제비다’라는 식의 삼단논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사상’(mapping)이나 ‘명제’(proposition)와 같은 수리논리적 용어를 은유 분석에 적용함에 있어서 생기는 결과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리논리 세계에서의 ‘말놀이’(language game)와 은유 세계에서의 그것은 같지 않은 것이다. 은유 분석에 유용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필자의 요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속성은 같지만 강도가 다른 경우

이 도표는 가령 ‘Sally가 빠르다’는 표현(a)과 ‘제비가 빠르다’는 표현(A)이 ‘빠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속도에 있어 a가 B보다 열성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2) f: A→B 가 사상이란 A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f(a)=B의 오직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집합이다.

이다. 이런 경우 'Sally는 제비다'라는 명제가 항상 거짓의 값을 지니기 마련이다. 곧 보게 되겠지만, 비유법이 그 속성상 항상 거짓의 값을 지니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제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개념은유는 항상 거짓 값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명제적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되풀이해 둔다.

여기서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1)의 예로 돌아가 보자. Engstrøm은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은유가 나오기까지는 먼저 CONVERSATION이 존재하고 이것이 WAR에 사상되어 ARGUMENT를 만들어 내며 이 ARGUMENT는 또 하나의 WAR*에 사상되어 명제적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가령 '삶은 여행이다'(LIFE IS JOURNEY) 혹은 '관념이란 패션이다'(IDEAS ARE FASHIONS)와 같은 개념 은유를 설명할 수 있는 도식(schema)은 무엇인가? 도표 1과 같은 도식이 이러한 은유 표현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논쟁'의 목표영역 이진인 목표영역에 '대화'를 설정하고서 여기서 새로 생긴 목표영역(논쟁)을 다시 근원영역(전쟁)에 사상시켜 그 결과를 명제적이라고 보는 Engstrøm의 관점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논하는 CONVERSATION은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은유표현을 낳게 하는 '상황'(context)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Lakoff/Johnson의 이론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은유가 언어적 행위일 뿐 아니라 개념적 사고에도 연관된다" 함은 은유가 명제적일 수도 있음을 뜻하는데도 이로부터 "은유가 명제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오류라는 Engstrøm의 지적 자체는 옳았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로부터 "은유는 명제적이다"라는 Engstrøm식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로 삼는 것은, 'A is B'라는 은유표현이 '명제'로서는 언제나 거짓이라는 점이다. (가령 '그는 제비다'라는 표현은 은유로서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제'로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진술이 '언제나' 거짓이라면, 그것에 '명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황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진술에 대해서 비로소 '명제적'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명제란 생각, 믿음, 희망, 의심 등의 태도를 표명하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 is B' 유형의 표현이 늘 거짓의 값을 지니면 명제성은 없어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유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바꿔 말해 은유가 참의 값과 거짓의 값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은유성을 상실하게 되며, 더구나 '은유도 참의 값을 지닌다'고 말한다면 이는 은유의 속성을 완전히 간과한 소치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은유는 명제적이다"라는 Engstrøm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Lakoff/Johnson의 '논점 1'에 대해 부언하자면, 그 속의 표현을 수정하여

‘은유는 언어적 표현을 빌린 개념적 사고와 이미지의 문제다’라고 제안하고 싶다.

논의를 일단락 지으면서 ‘mapping,’ 즉 이 글에서 지금까지 ‘포개짐’, ‘겹침’, ‘사상’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하다. 앞서 우리는 은유의 ‘단일방향적’ 사상관계에 대한 Lakoff/Johnson의 ‘논점 3’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Engstrøm은 이러한 방향성의 개념이 인지적 비대칭성의 개념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당하지만, 은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말한다(56). ‘A is B’라는 은유는 B의 속성이 A의 속성에 부분적으로 사상된다는 점에서 단일방향적 또는 비대칭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A is B’는 곧 ‘B is A’이기도 하므로 단일방향성 내지 비대칭성에 대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Engstrøm은 여기서 Lakoff/Johnson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A is B’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은유’의 사상구조를 포착하기 위한 도식인데, 이를 단지 논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Engstrøm의 비판은 사족에 불과하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은유의 형성과정과 해석법은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Sally는 얼음조각이다’라는 표현의 경우 ‘얼음조각’의 속성이 한 방향으로 Sally의 속성에 사상되어 하나의 은유가 형성되지만, 해석의 경우에는 ‘Sally가 얼음장처럼 마음이 차갑다’ 내지 ‘Sally는 냉담하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은유의 형성과정과 반대의 방향인 셈이다.

또한 A의 속성 일부와 B의 속성 일부가 (한 방향으로) 사상이 되면 A와 B사이에 함수관계가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하다. 부분적 속성의 사상에서 함수관계가 일어난다면 명제를 논할 수 있으나, 함수관계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명제적이 될 수 없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상’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속성과 속성 사이의 관계를 구태여 ‘사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 사용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곤 한다는 사실이 이 글을 통해 밝혀졌기 바란다. 수리논리적 용어인 ‘사상’은 함수관계를 함의하며, 따라서 Engstrøm이 ‘A is B’라는 Lakoff식 표현을 함수관계로 잘못 풀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A의 속성 중 일부와 B의 속성 중 일부가 사상된다’는 표현을 ‘B의 속성 일부와 A의 속성 일부가 공통된다’, 또는 ‘A의 속성이 B의 속성으로 이해된다’, 또는 ‘B의 속성이 A의 속성으로 투사된다’는 정도의 고쳐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3. 명제성을 넘어서 은유성으로

지금까지의 논지는 은유 분석가들이 개념은유를 내세워 모든 은유에 명제성을 논한 것은 부분에 근거하여 전체에 대해 단언하는 우에 해당함을 보이는 데에 있었다. 되풀이하거나, 'A is B' 유형의 은유가 'A is B' 유형의 문장 진술과 형태를 같이 한다고 해서 명제적이라고 분석한 것은 명제성과 은유성을 구분하지 못한 소치다. 좀더 넓은 관점에서 말하자면, 명제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분석으로는 은유표현의 자유분방한 맛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보자.

- (2) He lit the stage with his talent.
- (3) She just lapped up all the compliments.

여기서 우리는 동사의 의미영역이 추상명사의 그것에 마주쳐 확대 내지 이동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Grice가 말하는 '대화수칙' (maxim of conversation)을 위반한 셈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대화적 함축' (conversational implicature)의 효과를 지니게 되어 각각 '무대에서 재능을 발휘한다' 든가 '온갖 찬사를 눈 하나 깜짝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된다. 이런 경우에 대해 명제성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음과 같은 예는 양화사(quantifier)의 사용에 있어 대화수칙을 어김으로써 함축적인 효과를 내게 되는 경우이다.

- (4) I've read this millions of times.
- (5) You're the only woman in my life.

과장법(hyperbole)을 통한 이러한 표현을 명제적 차원에서 분석한다면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 참이나 거짓이나 하는 명제적 가치만을 따진다면 이런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의인화'의 예(6)나 '사물화'의 예(7)도 언어의 명제성과는 거리가 멀다.

- (6) Inflation is eating up our profits.
- (7) Mrs. Gandhi steamed out in the elections.

이러한 은유표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대립되는 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두 예문은 각각 사물을 사람에, 사람을 사물에 비유하고 있다.

환유(metonymy)나 제유(synecdoche)의 예에 대해서도 명제성을 운운할 여지는 없다.

- (8) The kettle is boiling.
- (9) Two uniforms got here, first.
- (10) The man lost his face for being late.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8)은 Langacker의 말대로 의미구조에 활성역(active zone)³⁾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boil의 활성역에는 물(기타 액체)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the kettle은 ‘the water in the kettle’로 인지된다. 예문 (9)의 two uniforms는 의미의 연상작용에 의해서 제복을 입은 두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예문 (10)의 lost his face는 의미의 확대(제유)를 통해 ‘체면을 잃었다’는 뜻으로 인식된다.

Searle(1979: 76-116)은 은유의 해석을 위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는 바, 여기에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논의를 마감하려 한다.⁴⁾

- 원칙 1 : P인 것들은 정의상 R이다: 은유가 성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R은 P를 정의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 원칙 2 : P인 것들은 경우에 따라 R이다: 은유가 성립되는 경우, R의 속성은 P의 두드러진, 혹은 잘 알려진 속성 중 하나이다.
- 원칙 3 : 청자와 화자 모두가 R이 P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있더라도, P인 것들은 대개 R로 인식된다.
- 원칙 4 : P인 것들이 R 혹은 그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에 의해 문화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지각하게 된다.

3) Langacker(1991)는 의미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윤곽(profile)과 바탕(base)의 영상개념을 이용한다. 바탕은 모습을 개념화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지식이다. 윤곽이란 문장의 실제 의미에 기여하는 부분만을 설명하기 위한 활성역 개념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의 용어에 연결시켜, 바탕은 ‘background’에 그리고 윤곽은 ‘foreground’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어떤 개체가 어떤 의미 구조의 서술(predication)에 포함될 때 일반적으로 그 개체의 특정한 측면, 즉 활성역만이 그 관계에 참여한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경우 hear 자체가 ‘hear the sound of’를 의미구조(윤곽)로 갖게 되는 것이다.

- a) She heard the piano.
- b) She heard the sound of the piano.

4) Searle은 여덟 가지의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여기서는 다섯 가지만을 소개한다.

원칙 5: P와 R이 의미상 같거나 유사하지만 P가 그 적용에 있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자적 의미로는 해석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예들도 결국은 이 원칙들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어 요점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 (11) Sam is a giant.
- (12) The lady is in a black mood.
- (13) That parliament was addled.

(11)이 'Sam is big/colossal/monstrous' 로 해석될 수 있음은 각각 원칙 1/2/3에 의한 것이고, (12)는 원칙 4에 의해 'The lady is angry and depressed' 로 해석될 수 있으며, (13)은 원칙 5에 의해 명제성이 배제된다. (이 마지막의 경우, 달걀이 꺾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국회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연상을 가능케 한다.) 사실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원칙 4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다. 즉 a giant/in a black mood/addled의 문자적 의미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 문화적 체험을 통한 연상작용의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 글에서 우리는 완성된 은유를 통해 명제성이 사라지는 예, 바꿔 말해 명제성이 있는 곳에서 은유성이 상실되는 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문자적 의미에 유추, 연상작용, 의미의 확장, 이미지의 대립 등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본래의 명제적 의미는 은유에 자리를 내어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koff/Johnson(10, 163)이 말하듯, 은유는 초점 받을 영역을 부각(highlighting)시키고 다른 부분은 가리면서(down-playing) 목표영역을 근원영역과 '동일하게'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의미의 확장 내지 연상, 각 표현간의 대응 및 상호작용, 환유·제유·직유·은유 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비유법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한다. 니체가 언어를 “꿈틀거리는 은유의 무리”라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⁵⁾ 물론 ‘근원영역’

5) 본 학술지에 있는 글 “대통합 언어이론을 향하여” 중에서 재인용.

의 속성 일부가 '목표영역'의 속성 일부에 겹쳐 명제성을 띠게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대하여 모든 언어적 표현에 대해 '사상'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 '은유의 명제성' 까지 주장하는 것은 전체를 부분에 귀속시키는 우(愚)에 해당한다. 실은 '사상' 관계 자체가 반드시 명제성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님을 이 글에서 밝혔다. 지금까지의 예에서 보았듯이 개념 은유의 종류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이라는 용어를 자칫 잘못 사용하여 '함수관계'나 '명제'나 하는 개념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면, 막상 은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게 된다. 원래 은유는 '개념상의 겹침'이 아니라 '속성간의 비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 표현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 인용문헌

-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Galaxy Book, 1962.
- Black, Max. "More about Metaphor." *Metaphor and Thought*. In Ortony.
- Engstrøm A.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Revisited." *Journal of Metaphor and Symbol* 14.1 (1999): 53-62.
- Glucksberg, S., and B. Keysar. "How Metaphors Work." *Metaphor and Thought*. In Ortony.
-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Vol.3. Speech Acts. Ed. Peter Cole and J. L. Morgan. Academy Press, 1975.
- Lakoff, George.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Metaphor and Thought*. In Ortony.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Langacker, R. W.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1991.
- Miller, G. A. "Image and Models, Similes and Metaphors." In Ortony.
- Ortony, Andrew, ed. *Metaphor and Though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Richards, I. A. *The Philosophy of Rhetoric*.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 Searle, J. R.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Turner, M., and G. Fauconnier. "Conceptual Integration and Formal Expression." *Journal of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0.3 (1995): 183-203.

[Abstract]

Propositionality and Metaphoricity of Metaphor

Kunsoo Kim
(Kang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On the one hand it takes issue with Engstrøm's claim that conceptual metaphors are propositional; on the other, it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mathematical term 'mapping' is inappropriate for the analysis of metaphors. To my mind, the propositional analysis of metaphors, a wrong analysis for that matter, originates in the notion 'mapping.' I argue that partial 'mapping' between propositional meanings and metaphorical meanings is either mental or psychological, with no concomitant 'truth' value. When concept metaphors represent propositionality, they lose metaphoricity; when they obtain metaphoricity, they are free of propositionality.

The mathematical terms 'mapping' and 'proposition,' it is stressed, should be avoided in the analysis of concept metaphors like 'A is B' because they are confusing when applied to linguistic expression. I suggest that the term 'mapping' be replaced by phrases such as 'interaction between two domains,' 'projection from source-domain to target domain,' or 'understanding the properties of two domains between A and B,' etc. This would amount to proposing a pragmatic or cognitive theory of metaphor.